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분단한국과 통일한국

성경: 에스겔 37장 15-22절

Tag:

15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37:15-22)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론 자들의 표어)

역사에 취한 민족에게 개념이 없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에겐 나라가 없다.

역사의 정치화 / 이념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 역사는 역사일 뿐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정치적 / 이념적 이슈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오늘날 유튜브에 국뽕이 유행이란다. -나는 일부러 보지 않는다.

심지어 외국사람들도 이 대열에 참여한다. 한국의 좋은 점을 자기네 나라와 비교하면서 한국인들의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콘텐츠다.

유독 한국인은 타인의 시선을 중시 여기는 문화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과거 양반 상놈으로 나뉘어 살때는 대부분이 상놈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양반인 시대에 살게 되면서 과거에 양반 아니었던 자들이 우월감을 국뽕으로 채우려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과거에는(5-6년 전) 정확하게 국뽕과 반대되는 운동도 있는데, 그 운동은 ‘헬조선 타령’이었다. ‘이게 나라냐’

이 나라 왜 이러나?

현재 한국은 이념전쟁의 초전방에서 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서히 우파진영이 힘을 내고 있는 형국이고 좌파진영은 막가파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검찰공화국이 실현되고 말았다. 결국 죄가 있는 자들이 몸 사리는 나라가 되었다. 검수완박을 위해서 거의 미친짓에 몰빵한 국회의원들의 과욕이 부른 법조문 하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에서 ‘등’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폭을 드넓히는 방법으로 검수완박법을 상당 수 무력화 시켰다.

오늘날 수 많은 방송에서 역사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느냐에 있다.

특히 교과 과정에서 좌편향된 역사 교육이 문제되고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역사왜곡의 역사는 길고 오래 되었다. 멀리는 광복 이전으로 올라간다. 언론도 좌편향 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지 오래 되었다. 대부분의 역사 인식이 한마디로 '북한 스텝다'. (방귀 똥 놔서 성내는 꼴) 북한은 오래전부터 왜곡된 역사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뇌시켰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자들만 간첩이 아니다. 아예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간첩과 다름없는 활동을 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룹에 파고들어 자신들의 이념으로 세뇌시킨다. 요즘에는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지만, 사실 그들보다 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념론자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지쳐있다. 이정도까지 했으면, 오래전에 나라가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소망하는 시대가 오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도 절망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노조와 전쟁 중이다. 그동안 노조는 드러내놓고 친북, 반미를 외쳐댔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받은 지령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예로부터 이들은 이념편향적인, 듣기에 그럴 듯 하나, 교묘하게 짜여진 문구들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해왔다. 장애인 단체, 노동조합, 전교조 등은 집회 때 꼭 반정부 구호를 외쳐댄다.

물론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역이용하여, 반 헌법적 주장을 한다. 언론은 객관적인 보도라 하면서도 우파의 주장은 신지 않던지, 부정적으로 보도하든지 한다. (전광훈목사가 대표적 비난 타겟, 회개가 덜된 강패풍)

언제쯤 이들의 케치프레이즈가 바뀔지 모르겠는데(이번에 들통 났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이

주로 외치는 것이 있다.

반미, 미국은 제국주의, 썩어빠진 자본주의.

반일, 친중, (반일 표현 1번 표어 독도는 우리 땅-독도는 이미 우리가 지배 중)

민주주의와 죽창가를 혼동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인민민주주의(죽창가가 어울림)가 아니다.

드라마마다 재벌은 악하게 표현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표현한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본주의가 나쁜 경제체제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악한 부자들이 좋아하는 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실제로 탈북민 중에서 남한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매우 현실적인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의 핵심가치

자유 시장경제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 -이것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됨.

청교도정신(드러나 보이지 않는 핵심가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인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인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청지기

물론 현재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등을 거치면서 부단한 입법활동으로 악과 대처하면서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다시금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는 기독교 청교도 정신인데, 이 핵심가치가 빠진 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과연 세상은 온전할까?

기독교정신이 빠진 세상은 당장에라도 디스토피아로 달려간다. 좀비들의 세상, 복수의 세상, 기계인간들에게 시달리는 세상으로 달려간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통일은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는 남겨진 자들에게, 여전히 신앙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일은 남겨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통일 한국에 필수적인 말씀이다.

기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 가치에 눈을 뜨게 하소서.  
거짓과 선동, 그리고 악한 이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전심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교리공부 5과      성경: 요15:26

Tag: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